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강



고 살아왔던 지나간 과거와 짐작이 함께 흘러내렸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화두를 어떻게 돌아야 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방법을 알게 되자 더 따뜻하게 화두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욱더 깊이 내면의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 화두수행을 통해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진정한 나를 싸고 있던 번뇌의 겹데기를 한 꺼풀 벗겨낼 수 있었다. 이런 참선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 나 스스로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온해지며 중심이 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참사람의 향기' 정민경 참가자 수행 후기 중)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 요즘 들어 마음이 고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마음이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의 빛을 만나고자 한다면 잠시 멈춰야한다. 절 마당의 방범등을 꺼야 별빛이 나타나듯 여기저기 켜놓은 나의 별빛들을 잠시라도 꺼야한다. 잠자기 전 이불 속에서 10분이라도 음식의 불, 비교하는 마음의 불을 끄고 호흡을 가다듬고 숨 쉬고 있는 생생한 자신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욕심부리지 않았다. 너무나 안락한 자연 앞에서 나를 그대로 내어놓았다. 새벽부터 지저귀는 산새들의 장단과 새벽 안개가 걷히고 나면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소담하면서 아름다운 발그레한 동백꽃까지... 금방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그 깨달음이 쉬이 내게 오지 않더라도 난 그저 행복했다. 동백꽃 주위를 맴도는 동백새가 노래해주는 그런 시간들, 난 그대로의 나였기에, 또 지금 이 자리의 나이기에 나는 행복하다." ('참사람의 향기' 김진주 참가자 수행 후기 중)

겨울철 내내 나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산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방법들마저 깨주는 일이다. <미항사 주지 스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위기의 녹차산업 이대로 방치할 건가

최근 보성 등 전남 녹차재배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녹차는 한때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3~4년 전부터 커피 열풍에 밀려 폐園(廢園)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등 녹차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녹차 재배면적은 지난 2008년 2683 농가 2034ha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9년 2594 농가 1894ha, 2010년 2367 농가 1599ha로 급감했다. 커피 호황으로 녹차 소비가 크게 줄면서 농가들이 서둘러 녹차농사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피·녹차 소비량에 대한 동서식품의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 총 232억6900만 잔에, 커피 소비인구 1인당 연간 521.2잔, 약 2kg으로 집계됐다. 반면 녹차소비량은 1인당 70~80g에 불과했다. 커피에 비해 녹차소비가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문제는 녹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한때 연 1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데 있다. 녹차 생산에 따른 직접효과는 물론 녹차 관련 관광산업, 음식료업 등 녹차 복합산업으로서 소득을 창출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녹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등한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녹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자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등 총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자는 친환경 국제식품을 늘리고 고가품 이의 중저가품 개발, 소비자 기호 충족 등 제품의 다양화·고급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품종개량, 녹차 가공산업 육성, 관광산업 연계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 역시 농가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차 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준비 안된 '주5일 수업' 부작용 대책 있나

새 학기부터 전국 1만1천493개 초·중·고 가운데 99.6%인 1만1451개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 광주에서는 3개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299개 초·중·고교가, 전남에서도 9개 학교를 제외한 822개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을 하게 된다. 토요일에 학교 안 가는 '놀토'가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체 학교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셈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입장을 놓고, 교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늘릴 수 있어,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입장을 놓고, 교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늘릴 수 있어,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학생들은 도시와 학력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주5일제 실시로 인한 학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방학의 시간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놀토'가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체 학교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셈이다.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고, 교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입장을 놓고, 교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늘릴 수 있어,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無等鼓

중국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국가적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기 중국 국가원수가 될 그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일정까지 미래권력을 꿈꾸고 있다.

중국의 '남버 2인' 시진핑이 '세계의 대통령'과 대등한 외교전선을 펼 것이다. 오바마와의 만남은 시진핑의 위상을 안팎으로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미국 방문을 통해 국제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함으로써 전 세계에 곧 그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렸다.

시진핑

날이 갈수록 시진핑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국제 외교계에서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졌다. 시진핑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을 끝으로 4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극복을 위해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해 중국이 글로벌 체제를 리드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방미기간 동안 시진핑은 내내 거침이 없었다. 국가 주석인 위안웨이(胡錦濤)가 견제한 가운데서도 시진핑은 당당한 행보로 일관했다.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은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가 정상급 요구를 내놓았다.

시진핑은 미국 방문을 통해 국제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함으로써 전 세계에 곧 그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렸다. 아일랜드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극복을 위해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해 중국이 글로벌 체제를 리드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연구원 월정 10,000원 1부 500원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including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기고



김장환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들려오는 매화꽃 소식은 늘 반갑기만 하다. 고아한 자태가 일품이기도 하려니와 봄에 대한 기대를 세삼 일깨워 주니 매화는 누구에게나 청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은 이를 설중군자(雪中君子) 혹은 보춘화(報春花)라 부르며 세한삼우(歲寒三友)의 으뜸으로 삼았다. 격조 높은 자태와 향기, 신선(辛酸)을 이겨내는 인내,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은화함(隱花)로 매화를 지고의 표상으로 여길 만한 덕목이었던 것이다.

설한(雪寒)속 매화에서 교육을 본다

매화를 일개 물상으로 여기지 않고 정신문화의 차원으로까지 이끌어 올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다"고 하였다. 격이던 원래 각각의 나무관자가 '뒤뜰림 없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품격은 곧고 바르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씨와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가를 간직하여 천하의 봄을 먼저 피우네(歲萬解香先天下春) 라고 노래하였다. 매화의 예지와 선도자적 모습을 예찬한 대목이다. 한겨울 삭풍을 깨끗하게 이겨내며 생명을 띄우는 매화야말로 내일의 희망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지사의 풍모에 비길 만하다. 헨리 반 다이키는 '무명교사 예찬'에서 "그가 켜는 수많은 촛불, 그 빛은 후일에 되돌아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그가 받는 보상이다"라고 하였다.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그리고 교원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 주는 것이 교육에 기초가 되어야한다. 가장 폭력 있는 교육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준비는 변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교육도 많은 분야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점진적 변화와 단계적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에서는 감미로운 진보의 이상도, 고달픈 보수의 현실도 다 함께해야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안다)도 하고 예시구진(興時俱進-시대 흐름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해 나간)도 해야 한다.

네팔에서 온 편지



박행순

매콤, 달콤, 짭짤한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밀반찬이 되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멀치 퐁이 네팔로 가져갈 특식으로 탈바꿈하여서 나를 기쁘고 흐뭇하게 만들었다. 동생에게 맛을 보라니 "멀치 퐁이 네팔까지 가고 출세했다"면서 혐오식품 대하듯 도리질할 한다. 인천공항에서 대학 남자동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안쓰럽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자신이 갑자기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받은 이메일 중에는 식사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있으라는 당부가 많다.

내가 만든 독창적 특식들

서는 절대로 생각내지 못할 새로운 조합인 것이다. 내가 네팔에 살면서 개발한 요리, 닭발도 소개하고 싶다. 닭발이란 내가 붙인 이름으로 닭 모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발할 때에 네팔 토종닭다리를 넣었더니 삶은 것보다 훨씬 더 고소해서 닭다리는 소금을 찍어 맛있게 먹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밤은 양념장으로 비벼먹는다. 음식 만들기를 간소화하다가 생겨난 요리이다. 네팔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내게 창의력 개발 기회를 주며 나는 이런 것들을 즐긴다. 멀치 대신 멀치 퐁을 식재료로 쓰고 포도주

만 몇 술갈 더 넣어서 멀치 볶음과는 다른 차원의 밀반찬을 만들고, 쌀이 없어서 미역 죽이 태어났으며, 콩나물밥 하는 식으로 닭발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해한다. 이런 것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가 아니라 응용일 뿐이다. 내가 네팔에서 겪는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만나는 사람들로 부터 배우고 깨닫는 것,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는 것들은 나의 새로운 자원, 창의적 응용거리가 되어 나의 여생을 보다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객관적인 환경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의 열려와 닫히 나는 네팔에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 때때로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고 이층 아파트의 베란차 앞에 해마다 피어나는 목련꽃이 눈에 선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피터의대 객원교수>